

## 조선후기 『隨園詩話』의 유입과 崔瑔煥의 『性靈集』 편찬

韓 東\*

### 국문초록

19세기에 이르러 여항시인 사이에 원매를 수용하는 열기가 일어났다. 최성환의 『性靈集』은 19세기 조선 시학의 이런 동향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을 제공해 주었다. 본고에서는 최성환이 『性靈集』을 편찬하는 연유와 원리를 고찰하는 것을 통해 19세기에 원매와 『隨園詩話』의 조선 전파 간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18세기 말~19세기 초 원매의 『隨園詩話』가 조선으로 들어온 후 열독의 열기가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조선 문인이 『隨園詩話』에 수록된 시론과 시에 대해 갖는 관심이 점점 증폭되었다. “성령” 시학을 이해하고 선언하는 측면에서 일부 문인은 『隨園詩話』의 내용을 선별하여 초록하였다. 최성환의 『性靈集』은 바로 이와 같은 배경을 통해 세상에 등장했다.

둘째, 최성환은 원매가 편찬한 『隨園詩話』의 영향을 받아 『性靈集』을 편찬하여 시를 선별하였는데, 이 때 진부하고 상투적인 창작 풍격을 지양한 동시에 시인의 신분과 성별 그리고 시가의 체제와 체격에 구속되지 않고 성령을 드러내는 시가라면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이로 인해 『性靈集』은 원매의 『隨園詩話』에 수록된 여성 시인과 염정시 그리고 “拔俗”, “風趣”의 풍격을 지니는 시가를 유독 많이 옮겨 담게 되었다. 이는 『性靈集』만이 갖는 가장 뚜렷한 특징이다.

셋째, 원매가 『隨園詩話』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시가의 후대 유전을 중시하는 경향과 마찬가지로 최성환이 『性靈集』을 편찬했을 때에도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隨園詩話』에 수록되어 있는 “早亡” 시인과 “自焚詩稿” 시인의 시가를 모두 『性靈集』에서 담아내게 된 것이다. 또한 18세기 후기 조선 시에 대한 자각을 강조하는 “조선풍” 시학 이념의 영향에서 최성환은 중국 역대 시가를 선별한 동시에 자신을 포함하여 조선 시인의 시가도 적지 않게 수록하였다.

[주제어] 최성환, 성령집, 원매, 수원시화, 시론

###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性靈集』의 편찬 원리와 『隨園詩話』의 영향 |
| II. 원매 『隨園詩話』의 조선 유입과 전파 | V. 맺음말                       |
| III. 『性靈集』 편찬의 연기(緣起) 재론 |                              |

\*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 handonghy@hotmail.com

## I. 머리말

원매(袁枚, 1716~1797)는 건가시단(乾嘉詩壇) 성령파의 거두로서 그 당시 시단에 성행하고 있던 “복고(復古)”와 “시교(詩敎)” 그리고 “고증(考證)” 기풍을 비판하여 “개성”과 “진정”을 표방하는 “성령” 이론을 제기하였다. 그의 “성령” 이론은 시단에 나타나자마자 많은 호응을 받아 널리 향유되기 시작하였다. 18세기 후반 연암그룹이 조선에서 처음으로 원매를 소개하여 도입한 이후 원매의 시문집과 시화집도 잇따라 조선에 들어왔다. 특히 그 가운데 『隨園詩話』의 유입과 전파는 조선 문인이 원매의 “성령” 이론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기반이 되었다. 본고는 19세기 조선 문단에서 袁枚를 수용하는 양상을 고찰하는 일환으로 최성환이 『性靈集』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원매 『隨園詩話』의 영향을 받은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해명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性靈集』은 19세기 중인 출신 무관 최성환(崔瑀煥, 1813~1891)이 1854년에 시작하여 1858년에 완성했다는 역대 시선집이다. 과거 80년대에 이우성 선생은 최성환이 원매의 성령 이론을 수용했다는 사실을 설파하며 『性靈集』의 성격을 중국 역대 시가를 선별하여 편집한 것으로 규정하였다.<sup>1)</sup> 이후 금지아 교수는 이 규정을 따르는 판단 하에 다시 『性靈集』의 판본 상황을 소개하며 더욱 상세하게 최성환이 원매의 “有我” 이론을 수용했던 사실을 밝혔다.<sup>2)</sup> 이외에도 정우봉 교수는 “독자반응비평”이라는 이론에 입각하여 최성환의 성령론과 김성탄의 문학의식 사이의 유사성을 밝혔고, 張混의 『詩宗』에 나타난 편찬의식과의 연관성을 고찰하는 한편 천기론(天幾輪)과의 상호 대비를 시도하였다.<sup>3)</sup> 기왕의 연구들은 최성환의 문학 연원과 지향성을 보다 선명하게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그럼에도 『性靈集』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언급에 그치고 말았으니 『性靈集』의 내부 구조를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유감이 있다. 필자는 『性靈集』<sup>4)</sup>을 읽는 과정에서 두 가지 현상을 발견하였다. 하나는 이 시선집의 명대 부분에서 중국 문인의 시가를 선별하여 수록한 동시에 이름을 날린 조선 시인들의 시가도 함께 수록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 시선집의 청대 부분을 보면 원매의 『隨園詩話』에 수록되어 있는 시를 인용하고 베끼는 내용이 차지하는 양이 유독 많았다는 것이다. 이상의 문제를 고려해 보았을 때 최성환 『性靈集』의 구조와 편찬 과정 중에 원매와 그의 『隨園詩話』로부터 도대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의문이 생긴다. 이는 다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 이우성, 「金秋史 및 中人層의 性靈論」, 『한국한문학연구』 5, 한국한문학연구회, 1980, 135~136쪽.

2) 금지아, 「『性靈集』의 편성체제와 특징」, 『中國語文學論集』 46, 중국어문학연구회, 2007, 419~439쪽.

3) 정우봉, 「19세기 性靈論의 재조명 - 崔瑀煥의 性靈論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35, 한국한문학연구회 2005, 79~106쪽.

4) 금지아(앞의 논문, 423~428쪽)는 고찰했듯이 지금 『性靈集』의 판본은 대략 國立中央圖書館, 延世大, 奎章閣, 潤松美術館, 嶺南大, 高麗大, 啟明大, 全南大, 慶北大 翠菴文庫, 雅丹文庫 10가지가 있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판본은 國立中央圖書館 소장본 (일산古3715-68)이다.

## II. 원매 『隨園詩話』의 조선 유입과 전파

원매 시학의 핵심이 “성령”이라면 그가 “성령”을 표방하게 되는 기초는 『隨園詩話』라고 말할 수 있다. 원매의 시학 이론은 『隨園詩話』의 출판과 유통으로 문단에 널리 전파되어 알려졌다. 그렇다면 『隨園詩話』는 언제 출판되었고 또한 조선에 유입되었는가? 이 질문은 주로 이런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隨園詩話』 최초의 판본은 건륭55년(1790) 隨園自刻本이라고 확인되며 『隨園詩話補遺』 판본의 완성 시기는 嘉慶2년(1797)으로 추정된다.<sup>5)</sup> 『隨園詩話』는 正編 16권과 補遺 10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화 1900여 條가 수록되어 있었다. 원매는 생전에 이미 『隨園詩話』의 편집과 출판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우인 畢弁山과 孫稼田의 후원을 받기도 하였다.<sup>6)</sup> 원매의 『隨園詩話』는 전통 교화론과 복고론의 구속을 벗어나 眞情한 새로움을 강조하며 시인의 신분 차이를 타파하고자 좋은 시라면 그 출처를 따지지 않겠다고 주장했기에 출판하자마자 많은 시인의 호응을 받았다.<sup>7)</sup> 원매의 성령 이론은 시단에서 인기가 많았던 탓에 그의 『隨園詩話』를 번각하는 것이 한때 유행처럼 성행하였다.<sup>8)</sup> 이른바 해적판의 유행은 당대에 원매 『隨園詩話』의 영향력을 잘 설명해 준다.

그러면 원매의 시문집은 도대체 언제 조선으로 수입된 것인가? 蔣敦復(1808~1867)은 『隨園軼事』 중의 ‘高麗使臣購隨園集’ 條를 보면 1765년에 홍대용이 이미 베이징에서 원매의 문집을 열독한 뒤 십여 부의 문집을 구입해 박제가 등 주변 사람에게 나누어 보냈으며, 몇 년 후에 또 다시 사람을 보내 문집을 주문하였음을 기술하고 있다.<sup>9)</sup> 그럼에도 이 논술의 신빙성은 懷疑할 만한 것이다. 우선 그 당시 청인 문집에 수록된 조선에 관한 기사가 대체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임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洪奭周(1774~1842)는 『鶴崗散筆』에서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중국 사람이 우리 조선에 관한 것을 기록하는 것은 항상 사실과 부합하지 않았다……근세 원매는 『小倉山房集』에서 스스로 고려(조선) 사신들이 자신의 문집을 구매하러 왔는데 그 사신 명단에서 내선인(先人)의 명휘가 적혀 있었다. 선인은 포의(布衣)로서 조고(祖考) 효안공(孝安公)을 따라 청나라에 갔지만 그때에 사신의 임무를 맡지 않았고 또한 그때에는 아직 원매의 문장을 잘 몰랐다.<sup>10)</sup>

5) 王英志(編), 『袁枚全集』 第一冊, 前言, 江蘇古籍出版社, 1993, 13쪽.

6) 袁枚(著), 顧學頤(校點), 『隨園詩話』 補遺 卷3, 人民文學出版社, 1960, 671쪽. “余編詩話, 爲助刻資者 畢弁山尚書, 孫稼田慰祖司馬也.”

7) 錢泳(著), 『履園叢話』, 丁福保(輯), 『清詩話』 下冊, 上海古籍出版社, 1978, 871쪽. “自宗伯三種別裁集出, 詩人日漸日少, 自太史隨園詩話出, 詩人日漸日多.”

8) 袁枚, 『隨園詩話』 補遺 卷2, 앞의 책, 1960, 630쪽. “余刻詩話尺牘二種, 被人翻板, 以一時風行, 賣者得價故也, 近聞又有翻刻隨園全集者.”

9) 蔣敦復(著), 『隨園軼事』, 王英志(編), 『袁枚全集』 第八冊, 江蘇古籍出版社, 1993, 50~51쪽.

10) 洪奭周, 『鶴崗散筆』 卷二, 『淵泉全書』 第七冊, 昨晨社, 1984, 66~67쪽. “中國人記我東事, 往往全失其實……近世袁枚小倉山房集自言高麗史臣來購己文集, 列使臣性命有吾先人諱字, 先人以布衣從吾祖考孝安公赴燕, 未嘗爲使臣, 時亦未嘗知有枚文也.”

중국 학자 장백위의 고증에 의하면 洪奭周가 말한 ‘선인’은 洪仁謨이고 ‘조고 효안공’은 洪樂性이며 효안공이 청나라로 갔던 시기는 1783년이었다.<sup>11)</sup> 洪奭周의 말에 따르면 1783년까지는 여전히 조선 문인이 원매를 몰랐던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1777년에 연암그룹의 문인이 이미 원매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776년에 조선 문인 유금은 청인 이조원과의 교담을 통해 원매를 알게 되었다. 그 이후 유금의 소개로 원매는 연암그룹에서 이름을 날리게 되었다. 또한 1777년에는 그들이 청인 이조원에게서 원매의 회고시 2수를 얻게 된다.<sup>12)</sup> 다만 그때까지도 원매의 문집은 여전히 구입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원매의 시문집은 빨라도 1783년 이후에나 조선으로 들어온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어서 원매 『隨園詩話』의 출판 시기를 고려해 보았을 때 조선으로 『隨園詩話』가 들어온 시기는 그의 다른 시문집에 비해 늦은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문헌 자료를 살펴보면 『隨園詩話』 正編은 18세기 말~19세기 초에 조선으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된다. 예로 이옥(李钰, 1760~1815)은 『百家詩話鈔』를 편찬했는데 이 시화집은 실제로는 원매 『隨園詩話』의 내용을 선별하여 베낀 것에 불과하다.<sup>13)</sup>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옥이 초록한 내용이 모두 『隨園詩話』 正編에 국한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옥은 『百家詩話鈔』에서 『隨園詩話』 補遺의 내용은 하나도 초록하지 않았다. 이로써 원매의 『隨園詩話』 補遺는 18세기 말까지도 여전히 조선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隨園詩話』 補遺가 늦어도 1817년에 이미 조선으로 들어왔다는 정보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조인영(趙寅永, 1782~1850)은 『讀隨園詩話有感 并序 丁丑』에서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내가) 숙직하고 잠을 들어오지 않았을 때 우연히 원매의 『隨園詩話補遺』을 읽었다. 그 권3에서 말하기를, “남경(白下) 출신 수재인 사마장은 자가 石圃이고 정신 풍모가 대범하다. 그가 나이가 어려서 정이 많다.”하였다. 이에 내가 그의 사곡을 몇 편을 기억하였다. 이 사람은 지금 계주 지부를 맡고 있었는데 내가 그와 여행길에서 만나고 시로 서로 주고받았다. 이런 것을 매우 놀라고도 기뻐하며 시를 짓고 감탄하였다.<sup>14)</sup>

여기서 조인영은 자신이 일찍이 원매의 『隨園詩話補遺』에서 읽은 인물을 우연히 여행 도중에 직접 만났다고 기술하였다. 이와 같이 감탄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시기가 丁丑 년인데 이는 곧 1817년이다. 그러므로 원매의 『隨園詩話』 補遺가 비록 正編보다 늦게 조선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여전히 19세기 초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원매의 『隨園詩話』가 조선으로 도입된 이후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문사

11) 張伯偉, 『清代詩話東傳略論稿』, 中華書局, 2007, 142쪽.

12) 이경수, 『漢詩四家の 清代詩受容研究』, 태학사, 1995, 144~152쪽.

13) 이옥의 『百家詩話鈔』는 원매의 『隨園詩話』를 초록하는 문제와 구체적인 내용은 중국 학자 張伯偉(「李钰『百家詩話鈔』小考」, 『域外漢籍研究集刊』 3, 中華書局, 2007, 49~59쪽)와 童玲(「『百家詩話鈔』溯源小考」, 『古代文學理論研究』 33,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11, 392~404쪽)은 이미 상세히 밝힌 바가 있었다.

14) 조인영, 『讀隨園詩話有感 并序 丁丑』, 『雲石遺稿』 卷二, 『韓國文集叢刊』 299, 민족문화추진회, 2001, 30쪽. “直廬無寐, 偶閱袁枚隨園詩話補遺第三卷, 有云: 白下秀才司馬章, 字石圃, 風神蕭灑, 年少多情. 而仍記其詞曲數闕, 此人今現任薊州知府, 余燕路相遇, 與之酬唱者也, 驚喜如對, 以詩志之.”

들이 이 작품을 널리 열독하였을 뿐 아니라 『隨園詩話』의 내용을 직접 인용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隨園詩話』 正編에 대한 인용은 이옥의 『百家詩話鈔』 이외에도 또 하나의 사례를 찾을 수 있다. 박제가의 셋째 아들인 박장암(朴長庵)이 1809년에 엮은 『縞紵集』에서 원매를 기술하는 내용은 실제로는 원매의 『隨園詩話』를 직접 정리하여 인용한 것이다.

원매가 말하기를, “(나는) 평생에 집구시와 차운시 그리고 첩운시를 하지 않았다.” 했고 또한 말하기를, “牽率을 구애하면 天籟를 상하게 한다.” 하였다. 그가 장사전과 우호하고 서로 추앙하기도 하였다. 일찍이 시를 논했는데 말하기를, “내가 황정건을 마음에 들미 않고 양만리를 좋아한데 군이 양만리를 좋아하지 않고 황정건을 선호한다. 이것이야말로 화이부동이다.” 하였다.<sup>15)</sup> (박장암, 『縞紵集』)

내가 시를 지을 때 첩운와 화운 그리고 고인의 운을 좋아하지 않았다. 대개 시란 성정을 드러내서 단지 내가 마음에 들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sup>16)</sup> (원매, 『隨園詩話』 卷一)

장사전과 나는 서로 추앙하지만 단지 시를 논한 것은 부합되지 않았다. 내가 황정건을 마음에 들미 않고 양만리를 좋아하는데 군은 양만리를 좋아하지 않고 황정건을 선호한다. 이것이야말로 화이부동이다.<sup>17)</sup> (원매, 『隨園詩話』 卷八)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박장암은 『縞紵集』에서 『隨園詩話』 권1과 권8에 수록하는 내용 각자 한 칙을 정리하여 인용하였다. 『隨園詩話』에 대한 인용 사례는 『隨園詩話』가 당대 조선에 널리 전파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동시에 조선 문인들이 원매에 관한 인식과 수용이 18세기보다 더욱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본고에서 고찰하는 최성환의 『性靈集』 편찬도 이러한 수용 심화 과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Ⅲ. 『性靈集』 편찬의 연기(緣起) 재론

최성환은 일찍이 『性靈集』을 편찬하는 연유를 「性靈集序」에서 아래와 같이 고백하였다.

옛 사람의 성이 좋아하는 것이 곧 나의 성이 좋아하는 것이다. 옛 사람의 성으로 옛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다만 이와 같은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나의 성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15) 박장암(역음), 『縞紵集』 上, 이우성(편), 『楚亭全書』 下, 亞細亞文化社, 1992, 19쪽. “枚自言平生不集句次韻不疊韻, 謂拘於牽率致傷天籟也, 與蔣尤好互相推許, 曾與論詩曰: 余不喜黃山谷而喜楊誠齋, 子不喜楊而喜黃, 可謂和而不同.”

16) 袁枚, 『隨園詩話』 卷1, 앞의 책, 1960, 3쪽. “余作詩 雅不喜疊韻和韻及用古人韻 以為詩寫性情 惟吾所適”

17) 袁枚, 『隨園詩話』 上 卷8, 앞의 책, 1960, 282쪽. “蔣苕生與余互相推許, 惟論詩不合者, 余不喜黃山谷而喜楊誠齋, 蔣不喜楊而喜黃, 可謂和而不同.”

것 또한 이와 같은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면, 옛 사람이 말한 것이 곧 나의 말인 것이다. 나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나의 마음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나의 마음에 맞는 것은 진실로 나의 말이요, 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은 나의 말이 아니다. 맞는 말을 취하여 나의 말로 삼는다면, 그 말이 문장으로 표현된 것 또한 나의 문장이다. 누가 그렇지 않다고 말하겠는가? 이것이 내가 성령집을 편찬한 까닭이다.<sup>18)</sup>

이상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최성환은 옛 사람과 자신의 “性”이 서로 같다는 데에 입각하여 옛 사람의 시를 빌려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즉 『性靈集』 편찬의 연유가 다른 이의 “성령시(性靈詩)”를 초록하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성령 취향을 보여주려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의 말을 보다 깊이 음미해 보면 이와 같은 고백은 오로지 『性靈集』을 편찬하는 목적을 드러내 설명하고자 하는 데에서 연원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최성환은 어떤 배경에서 이와 같은 목적을 세웠을까? 이 문제는 바로 『性靈集』 편찬의 연기(緣起)에 관한 것이다.

최성환의 『性靈集』은 正編·續集·補遺·續集補遺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수는 20권에 달하는 방대한 시선집이다. 이 시선집에 수록된 시 양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全詩”이고 다른 하나는 “摘句”이다. 또한 『性靈集』의 가장 뚜렷한 특징을 소개한다면 역대 名媛의 “全詩”와 “摘句”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性靈集』에는 “全詩” 5850首와 “摘句” 3498聯이 함께 수록되어 있는데 시대별로 계산해 보면 청대의 시가가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최성환이 선별하여 옮겨 담은 청대 시가를 다시 살펴보면 원매의 『隨園詩話』에 기재되어 있는 시가를 베껴 수록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도표로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        | 正編    | 續集(歷代名媛) | 補遺(歷代摘句) | 續集補遺(歷代名媛摘句) |
|----------|-------|----------|----------|--------------|
| 共計       | 4880首 | 970首     | 2548聯    | 950聯         |
| 清代       | 1316首 | 217首     | 1090聯    | 365聯         |
| 引用『隨園詩話』 | 494首  | 98首      | 634聯     | 70聯          |

이상의 통계 자료를 보면 최성환이 『性靈集』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원매의 『隨園詩話』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여기서 고찰해 볼 만한 문제가 하나 있다. 바로 최성환이 『性靈集』을 편찬하는 연기(緣起) 혹은 동기가 무엇인지를 재고(再考)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최성환은 중인 출신 무관이고 그의 시학 활동은 대개 여항 시인의 계보에 넣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최성환이 『性靈

18) 최성환, 「性靈集序」, 『性靈集』. “古人之性, 即我之性, 古人之所好, 即我性之所好. 以古人之性道古人之所好, 直不過如是也, 以我之性道我之所好, 亦直不過如是也. 是古人之所言者, 即我之言也, 豈可以不經我口遂謂之非我之心哉. 然則我心之所合者, 固我之言也, 我心之所不合者非我之言也, 取其所合之言而以為我言, 則其言之發為文章者, 即亦我之文章也. 其誰曰不然, 此我性靈集之所以撰也.”

集』을 편찬했을 때는 여항 선배 시인의 편찬 활동을 추종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정우봉 교수는 일찍이 『性靈集』과 張混 『詩宗』의 유사성을 주목하고 두 사람 간에 상호 공유된 시 의식에 입각하여 『性靈集』의 편찬은 어느 정도 『詩宗』의 맥락을 계승했다고 밝힌 바 있다.<sup>19)</sup> 그러나 여기에서 회피할 수 없는 문제가 두 가지 있다. 하나는 『詩宗』은 중국 역대 시선집인데 『性靈集』은 중국뿐만 아니라 조선의 시가까지 널리 선별하여 수록한 시선집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性靈集』은 청대 시가를 중심으로 수록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의 청대 시가의 출처가 원매의 『隨園詩話』에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다시 최성환 『性靈集』의 창작 배경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이 말할 수 있다.

우선, 『性靈集』의 편찬은 조선 18세기 말~19세기 초에 원매의 『隨園詩話』를 수용했다는 영향을 받았다. 앞서 언급하였듯 이옥은 일찍이 원매의 『隨園詩話』 正編을 선별하여 『百家詩話鈔』를 편찬하였다. 『百家詩話鈔』의 내용을 보면 주로 시화를 초록한 동시에 일부 시인의 “全詩”와 “摘句”도 함께 기재하고 있다. 물론 그 가운데 名媛의 시가도 발견할 수 있다. 다만 『百家詩話鈔』에서 시화와 “全詩” 그리고 “摘句”의 내용은 분별하여 선명하게 정리되지 못하고 서로 뒤섞여서 기록하고 있다. 반면 최성환의 『性靈集』을 보면 『隨園詩話』 正編뿐만 아니라 補遺까지 초록한 동시에 그 시를 시대와 항목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에 『隨園詩話』를 베낀 수량과 범위 면에서 최성환의 『性靈集』이 갖춘 규모는 이미 이옥의 『百家詩話鈔』를 넘어선 것이다. 양식 측면에서 보아도 『性靈集』의 구조는 『百家詩話鈔』보다 더욱 완비된 구성을 갖추었다. 따라서 최성환이 『性靈集』을 편찬한 것은 張混의 『詩宗』 편찬을 잇고자 한 것이 아니라 당대 조선에 있는 원매 성령 시학을 수용하고, 특히 원매의 『隨園詩話』를 열독하여 정리하는 기풍을 계승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隨園詩話』가 조선에서 널리 전파되고 열독의 대상이 된 것은 최성환으로 하여금 『性靈集』을 편찬하는 기반이 되었다. 고로 이옥은 『百家詩話鈔』를 통해 자신의 시론 주장을 고백하고자 했던 반면, 최성환은 『性靈集』을 통해 자신의 성령 시학 취향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이옥이 『百家詩話鈔』를 편찬할 때 『隨園詩話』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최성환이 『性靈集』을 편찬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예를 들면 『隨園詩話』는 원래 시화와 시가를 섞어서 함께 기술하는 형식을 취했기에 제목이 없는 시가가 적지 않았다. 때문에 최성환은 이런 무제(無題) 시가를 초록하여 『性靈集』을 편찬했을 때 해당 시가의 주요 내용을 개괄할 수 있는 제목을 스스로 만들어 붙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모두 51개로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출판시의 편의를 고려하여 불편이 발생할 긴 제목은 짧게 개정하거나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선호로 인해 제목을 일부 바꾸어 버린 사례도 36개가 있다. 원래 『隨園詩話』는 한 시인의 시가를 집중적으로 많이 수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성환은 최대한 다양한 시인의 시가를 수록하기 위해 한 시인이 쓴 많은 시가 가운데에서 언제나 가장 마음에 든 시가 한 수 혹은 두 수만을 뽑아서 기재하였다. 때문에 『性靈集』에서는 원매의 『隨園詩話』에 수록되어 있는 동일 시인의 시가를 단 몇 수만 뽑아 초록한 경우가 매우 많았다. 이런 사례는 모두 117개로 확인된다. 이외에도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한 시의 한 연만 수록하는 경우, 작가의 이름을 틀리게 기록하거나 타인의 시가를 원작자와

19) 정우봉, 앞의 논문, 2005, 87~95쪽.

는 전혀 다른 엉뚱한 사람의 명의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性靈集』은 편찬 과정에서 18세기 후기 조선 시단에 나타난 “조선풍” 시학 운동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여기서 “조선풍”이란 조선 후기에 일부 문인이 주체의 자각에 입각하여 중국 시가 가치의 절대성과 우위성이라는 사유의 틀을 벗어나 조선 시가가 갖는 가치를 추구하고 강조하는 문학 운동을 말한다.<sup>20)</sup> 『性靈集』의 편찬 과정에서 최성환은 어느 정도 이와 같은 식의 문학 정신을 드러내며 실천하였다. 예를 들면 『性靈集』에서 明代 부분에 수록된 시가를 보면 중국 시인 이외에도 占城貢使의 七絶 한 수와 조선 시인 17명의 시가 30수를 같이 수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sup>21)</sup> 뿐만 아니라 清代 부분을 보면 최성환 자신이 직접 쓴 五律 한 수를 수록하기도 하였다.<sup>22)</sup> 이 시가 옆에는 최성환이 이 시를 쓰게 된 연유를 설명하는 글도 같이 첨부하고 있다.

先大父 菊隱公은 “郊外”란 한 연을 썼다. “해가 뜨니 까마귀가 날아 흠어지고, 고촌에 흰 연기가 자욱하다.” 先考 雲樵公도 “郊外”란 한 연을 쓰기도 하였다. “산이 공하니 운이 만지하고, 평야가 넓으니 물이 하늘에 떠다니다.” 그러나 두 시가의 전편은 이미 잃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 문집에 수록되지 않았고 단지 이 2 연만 입으로 전해 내려왔다. 내가 시간이 오래 되면 또 실전될까봐 걱정되었다. 이제 교외에 가는 행정이 있고 그 경을 맞춰 정을 얻었는데 다시 2 연을 쓰고 보충하기로 하였다.<sup>23)</sup>

최성환의 설명에 따르면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각자 “郊外” 시 한 연을 썼고 최성환은 이 두 연이 훗날 실전(失傳)될까봐 걱정하였는데, 그때 마침 교외에 가는 일에 있었기에 그가 스스로 2연을 써서 함께 그 뒤에 붙이고 五律 한 수를 완성하였다고 했다. 최성환은 이 “郊外” 시를 『性靈集』에 수록한 것은 선인의 시가를 보존하기 위함이었다고 고백했지만 정작 그에게는 자신이 쓴 시가의 성령 취향을 보여 주는 동시에 후대에 유전하려는 의도도 없지 않았다. 명대 부분에 조선 문인의 시가를 적지 않게 수록한 데에 비하여 청대 부분에서는 그가 단지 자신이 쓰는 시가 한수만을 수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性靈集』에 중국 역대 문인

20) “조선풍”의 개념과 문학 지향 등 문제에 대한 상세히 논술은 이정선, 『조선후기 조선풍 한시 연구』,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2, 17~52쪽 참조 바람.

21) 占城貢使(七絶 1) 鄭夢周(五律 1), 申叔舟(五律 1), 徐居正(七絶 1), 崔應賢(七絶 1), 成俔(七古 1), 金訥(七絶 1), 南孝溫(七絶 1), 申從濩(七絶 1), 鄭之升(七絶 1), 金淨(五古 1, 五絶 1), 申光漢(五絶 1, 七絶 1), 崔慶昌(七古 1), 李達(七律 1), 林悌(五絶 1), 姜克誠(五絶 1), 許筠(五古 1), 許景樊(五古 1, 五律 1, 七律 1, 五絶 3, 七絶 6). 이상 시가의 출처를 따져 볼 때 占城貢使, 鄭夢周, 申叔舟, 徐居正, 崔應賢, 成俔, 金訥, 南孝溫, 金淨, 申光漢, 崔慶昌, 許筠, 許景樊의 시가는 전검익의 『列朝詩集』 朝鮮 조에 수록되어 있는 시가를 초록했으며 그 이외에도 『列朝詩集』에 수록되지 않은 姜克誠, 林悌, 申從濩, 鄭之升의 시가는 孫致彌의 『朝鮮採風錄』과 주이준의 『明詩綜』 그리고 왕사정의 『池北偶談』 등에 수록되어 있는 조선 시가를 인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李達의 「韻成次王峯韻」 七律詩는 『列朝詩集』과 『朝鮮採風錄』에서 모두 수록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이에 여기서 최성환이 시가를 선별할 때 그 시기에 이미 널리 알려진 시가를 직접 초록한 동시에 자신 스스로 호감을 갖는 이전의 시가 보다는 새로운 시가를 선별하고자 하는 방향을 취하고자 한 편선 특징을 읽어낼 수 있다. 孫致彌의 『朝鮮採風錄』과 주이준의 『明詩綜』 그리고 왕사정의 『池北偶談』에서 수록된 조선 문인의 시가 현황은 劉靖·金榮鎮, 「清人 孫致彌가 편찬한 『朝鮮採風錄』에 대한 고찰」, 『溫知論叢』 42, 2015, 370~382쪽 참조.

22) 최성환, 『性靈集』 “日出樓鴉散, 孤村生白煙. 山空雲滿地, 野闊水浮天. 客袖濃承露, 磯途斜讓泉. 孤吟吟正苦, 無處覓流季.”

23) 최성환, 『性靈集』 “先大父 菊隱公有郊外一聯云: 日出樓鴉散, 孤村生白煙. 先考 雲樵公亦有郊外一聯云: 山空雲滿地, 野闊水浮天. 但俱逸全篇, 故集中不載, 惟二聯誦在人口. 余懼日久而失傳也, 今於郊外之行, 因其境而得其情以二聯足之.”

시가 이외에도 조선 문인과 최성환 본인이 쓰는 시가도 함께 수록됐다는 것을 보면 최성환은 조선 시가의 수준을 높이 평가하려고 한 동시에 중국 시가와 함께 후대로 유전해보고자 했던 의도도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여기에서 최성환은 “성령”을 드러내는 시가가 비단 중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에도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최성환이 『性靈集』을 편찬한 연기를 밝히자면 해당 시기에 조선 문인이 원매의 『隨園詩話』를 열독하고 수용하면서 정리하고 인용하는 것을 즐겨하던 당대 기풍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최성환은 18세기 후기 이래로 시단에 나타난 “조선풍” 이론이 이미 조선 문인 사이에 널리 전파되고 문인들의 의식 속에 스며들어 있었음을 파악하여 중국시가뿐만 아니라 조선 시가까지도 함께 수록하기도 했던 것이다.

#### IV. 『性靈集』의 편찬 원리와 『隨園詩話』의 영향

이상 최성환이 『性靈集』을 편찬한 배경을 고찰하였다. 이제 최성환이 『性靈集』을 편찬하는 과정이 어떤 원리에 따라 진행되었는지 더불어 이런 원리에 내재된 원매의 『隨園詩話』와의 관계는 또한 무엇인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장에서는 최성환이 『性靈集』을 편찬했을 때 시를 선별하는 범위와 대상 그리고 풍격의 세 가지 측면을 통해 논술한다.

최성환은 일찍이 『性靈集』 凡例에서 말하기를, “이 집은 한·위부터 오늘까지 망라하고 마치 風·雅·頌을 편집했다는 것을 계승하는 것과 같다. 이에 선진시대 이전의 고일사는 이 책에 수록되지 않았다.”<sup>24)</sup>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 『性靈集』의 선시 범위는 한·위부터 청대에 이르는 넓은 시대를 다루고 있다. 『性靈集』의 선시 범위가 이토록 광대한 너비를 갖는다 하더라도 최성환은 다만 하나의 원칙을 견지하였다. 그는 「性靈集序」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책은 성령에 전념하고 그 격조는 버금이며 기백(웅혼)은 버리는 것이다. 이는 나의 성정과 가까운 것이고 나의 시집이라고 말할 수 있다.”<sup>25)</sup> 이를 통해 최성환의 『性靈集』은 주로 성령을 드러내는 시가를 초록하고자 격조에 구속된 시가를 포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최성환에게 격조란 성령에 대치된 존재이다. 원매는 일찍이 “但添出一分氣格 定減去一分性情”<sup>26)</sup>을 말했고 “但多一分格調者, 必損一分性情”<sup>27)</sup>을 강조한 적이 있었다. 이에 원매는 격조론을 반대하는 편에서 시인이 각자의 성정에 따라 자유롭게 창작하기를 원하였다. 최성환이 역대의 시를 선별할 때에는 바로 이와 같은 원칙을 고수하였다. 예를 들면 『性靈集』에 초록되어 있는 시 가운데 청대 성령파의 원매와 조익의 시를 제일 많이 수록하고 있다.

24) 최성환, 「凡例」, 『性靈集』. “是集始自漢魏以至於今, 猶之承頌雅國風之後, 故先秦以上古逸詩集槩不錄也.”

25) 최성환, 「性靈集序」, 『性靈集』. “是集也, 專主性靈而後格調捨氣魄, 是固我之性有所相近者也, 是固為我之詩集也.”

26) 袁枚, 『隨園詩話』 卷3, 앞의 책, 1960, 66쪽.

27) 袁枚, 『趙雲松廬北集序』, 『小倉山房文集』 卷28, 王英志 主編, 『袁枚全集』 第二冊, 江蘇古籍出版社, 1993, 489쪽.

| ＼  | 五古 | 七古 | 五律 | 七律 | 五絶 | 七絶 | 五排 | 七排 | 六絶 |
|----|----|----|----|----|----|----|----|----|----|
| 袁枚 | 12 | 3  | 3  | 4  | 15 | 5  | 1  |    | 3  |
| 趙翼 | 13 | 2  | 2  | 4  | 18 | 8  |    | 1  | 4  |

위의 도표를 보면 최성환은 성령파의 거두 원매의 시를 46수를 수록하였는데 이에 비하여 명대 공안파 “三袁”의 시는 단지 13수만을 수록하고 있다.<sup>28)</sup> 이로써 최성환이 추구하는 성령은 실제로 이미 명대 공안파의 틀을 벗어나 청대 성령파 원매의 심미 취지에 경도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전화는 실제로 19세기에 들어와서 조선 문인이 성령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이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최성환이 비록 성령을 드러내는 시를 중심으로 선별했지만 시가의 유파를 구한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최성환이 성령시를 선별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때 선별의 범위는 성령파 내 부만으로 구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컨대, 明清 시기의 시가를 보면 공명파와 성령파 이외에 최성환은 성령의 취지에 어긋나는 복고파(復古派), 당송파(唐宋派), 경릉파(竟陵派), 격조파(格調派), 신운파(神韻派) 기리파(肌理派) 등 다른 유파 문인의 시가도 함께 수록하였다.<sup>29)</sup> 최성환의 이런 채시 태도는 원매의 이념과도 일맥상통한 것이다. 예로 원매는 아래와 같이 말한 바 있다.

시를 선택할 때 문호가 반드시 넓어야 되고 채취는 반드시 엄격해야 된다. 만약에 유파의 주장을 알아보면 문호는 자연히 넓어지고 만약에 그 멋진 소재를 알아보면 그 채취는 자연히 엄격해진다. 내가 시를 논하는 것은 광범위해 보이지만 그 본질은 엄격한 것이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음악은 宮音 이든지 徵音이든지 모두 맑아야 되고 맛은 시름하거나 짜거나 모두 신선해야 된다.’하였다.<sup>30)</sup>

이상의 내용을 보면 원매는 시가를 선별할 때 그 범위는 필히 넓어야 하며 동시에 수준이 높은 것만 선택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주지하는바 명·청 이래 시학 유파는 끊임없이 나타났는데 이들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바로 서로 다른 유파들 간에 각각 자신의 주장만을 견지하여 상대를 공격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명대 이래 시단에 “문호지견(門戶之見)”의 악습이 성행하고 있었다. 원매는 이런 “문호지견”을 지양하여 시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는 원칙을 통해 유파의 구축을 벗어났다. 예컨대 원매는 시를 타고난 화초로 비유하여 봄 난초와 가을 국화가 모두 각자 한때의 수미가 있듯이 사람의 마음과 안목을 감동시키기만 하면 바로 훌륭한 시라고 지적하였다.<sup>31)</sup> 그러므로 원매는 맛은 시름하거나 짜거나 신선하면 되는 것이고, 시는 성령파가 되었

28) 袁宗道(五古 2, 七律 1), 袁宏道(五古 1, 五律 1, 七律 1, 五絶 3, 七絶 2), 袁中道(五律 1, 七絶 1).

29) 예를 들어 명대 복고파 李夢陽(七古 1, 五律 2, 七律 1, 五絶 2) 李攀龍(七古 1, 五絶 2, 七絶 1) 王世貞(五古 1, 七古 4, 五絶 2, 七絶 1); 당송파 唐順之(五律 1, 七律 1); 경릉파 鍾惺(五古 2, 五律 2) 譚元春(五古 1, 五律 1, 五絶 1). 청대 격조파 沈德潛(五律 2, 七律 1, 五絶 1); 신운파 王士禛(五古 2, 七古 2, 五絶 15, 六絶 3); 기리파 翁方綱(五古 3, 七律 2, 五絶 10, 七絶 2).

30) 袁枚, 『隨園詩話』 卷7, 앞의 책, 1960, 222쪽. “選詩如用人才, 門戶須寬, 採取須嚴, 能知派別之所由 則自然寬矣, 能知精采之所在, 則自然嚴矣. 余論詩似寬實嚴, 嘗口號云: 聲憑宮徵都須脆, 味盡酸鹹只要鮮.”

31) 袁枚, 『隨園詩話』 卷3, 앞의 책, 1960, 52쪽. “詩如天生花卉, 春蘭秋菊, 各有一時之秀, 不容人為軒輊 音律風趣, 能動人心目

든 복고파가 되었던 성정을 잘 드러내면 되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隨園詩話』에 수록되어 있는 시가들을 볼 때 성령과 시인의 시가를 상대적으로 많이 기재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철자 이몽양과 후철자 왕세정이 쓴 좋은 시에 대해서도 역시 높이 평가하여 수록하기도 했다. 이를 토대로 최성환이 『性靈集』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시대와 유파에 구속되지 않은 동시에 성령을 잘 드러내는 시를 중점적으로 수록하고 있었던 것은 원매가 강조했던 “門戶須寬 採取須嚴”의 채시 원칙을 따라 진행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최성환이 원매가 강조했던 “門戶須寬”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시 내용을 선별한 부분에서도 재확인된다. 예를 들어 『性靈集』에서 방대한 시가를 수록하고 있는데 그 시가의 내용 체제는 대개 “山水景物詩”, “閨怨詩 宮怨詩 香奩詩”, “題畫詩”, “懷古詠史詩”, “送別詩”, “懷人悼亡詩”, “生活瑣事詩”, “應酬詩” 등으로 귀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체제 가운데에서도 “閨怨詩 宮怨詩 香奩詩”의 수량이 적지 않았다. 이런 시들은 진정을 드러내는 것으로 남녀의 그리움과 원한 그리고 욕망을 자연스럽게 보여 주고 있다.<sup>32)</sup> 유가 전통 시론에서 “情詩”는 배척하게 되는 대상으로 언제나 많은 비난을 받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원매는 “情詩”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隨園詩話』에 많은 “情詩”를 수록하였다. 원매는 일찍이 심덕잠에게 편지를 보내 염시의 가치문제를 토론한 적이 있었다.

(내가) 『別裁集』에 왜 유독 王次回의 시는 선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는데 (선생은) 염체시는 족히 교화를 베풀 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였다.……시를 선별하는 도는 역사를 쓰는 것과 같다. 한 시대의 인제는 전할 만하는 사람이 모두 전을 써야 되고 속되고 구속된 견해로 사람을 적게 취하면 안 된다.……시는 기이하든지 평담하든지 염려하든지 속박하든지 모두 채취할 수 있고 꼭 장엄한 것을 취할 필요가 없다.……(음악은) 잘 울리는 것을 선택하여 그 울리는 것을 감상하면 된다. 꼭 宮음과 商음을 존하고 角음과 羽음을 경시하며 경과 쇠 소리를 존하고 현을 경시할 필요가 없다.……염체시와 궁체시는 모두 시가의 한 체격이고 공자도 鄭衛의 시를 삭제하지 않았는데 해필 선생은 王次回의 시를 삭제하였다. 이것은 지나치지 않았는가?<sup>33)</sup>

여기서 원매는 음악이 듣기 우미하고 좋으면 감상할 만하고 그 음악을 구성하는 다른 악기와 음조의 가치 우열은 본래 평가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래서 원매는 시를 음악으로 비유하고 염체시와 궁체시는 정체시와 같이 모두 시가 체격의 한 종류라고 보았으며 이런 시들의 가치는 본래 우열의 차이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마치 원매가 앞에서 시를 화초에 비유하고 사람의 마음과 안목을 감동시키기만 하면 바로 훌륭한 시라고 지적했듯이 시가의 가치는 시의 체격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가의 내용이 진정을 전달할 수

者，即為佳詩，無所為第一第二也。”

32) 예컨대 候光第, 「山塘竹枝詞」: “當爐十五鬢堆鴉, 稱體單衫淺碧紗. 玉盞勸郎拼醉飲, 更無花好似儂家.”; 陳浦, 「商婦怨」: “淚滴門前江水滿, 眼穿天際孤帆斷. 只在郎心歸不歸, 不在郎行遠不遠.”; 邵帆, 「竹枝」: “送郎下揚州, 留儂江上住. 郎夢渡江來, 儂夢渡江去.”

33) 袁枚, 「再與沈大宗伯書」, 『袁枚全集』第2冊, 앞의 책, 1993, 285쪽. “問別裁中獨不選王次回詩, 以為艷體不足垂教, 僕又疑焉. ……選詩之道, 與作史同, 一代人才, 其應傳者皆宜列傳, 無庸拘見而狹取之……詩之奇平艷樸, 皆可采取, 亦不必盡莊語也……擇其善鳴者而賞其鳴足矣, 不必尊宮商而賤角羽, 進金石而弦匏也……艷詩宮體, 自是詩家一格, 孔子不刪鄭衛之詩, 而先生獨刪次回之詩, 不已過乎.”

있는지 또한 사람의 마음을 환기할 수 있는지 등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성환은 「性靈集序」에서 아래와 같이 말한 바가 있다.

등불 밝힌 저녁이나 꽃이 핀 아침에 옛 사람의 책을 펼치면 경치를 묘사한 것, 감정을 토로한 것, 정직한 것, 아름다운 것, 빼어난 것, 넓고 큰 것, 현묘하고 심원한 것, 진솔한 것, 기괴한 것, 아로새긴 것, 깊숙하고 가파른 것, 울적한 것, 뛰어나고 기이하며 빛나는 것 등으로부터 사공도의 이십사품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것들이 다 펼쳐져 나의 마음과 눈을 어지럽히지만, 이것들이 모두 나의 성정에 맞는 것은 아니다. 때때로 나의 성정과 가까운 것들을 만나면 저절로 춤추다가는 감탄을 하고 이어서 나의 것이 되지 못함을 한스럽게 여겨서 마음속에 답답한 것이 또한 여러 날 가기도 하였다.<sup>34)</sup>

이상의 내용은 최성환이 『性靈集』을 편찬했을 때 고인의 시집을 열독하고 선별했다는 옛일을 회상하는 것이라고 여길 수 있다. 최성환은 시가를 선별하는 작업에 임했을 때 다양한 종류와 체격의 시가를 넓게 접촉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는 이 많은 시가들이 모두 마음에 들지는 못하고 어느 것은 선택하고 어떤 것은 버려야 된다고 믿었다. 시가를 선택하거나 버리는 과정에서 최성환은 시의 체격 우열을 판단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마음에 가까운 것만 선택하였다. 다시 말하면 최성환은 시를 선별할 때 시가의 체격은 염치시거나 정체시거나 이를 마음에 두지 않는 대신 오직 성정만 드러내면 된다고 견지하였다.

이상 최성환이 시가를 선별하는 범위 측면에서 원매와 그의 『隨園詩話』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밝혔다. 이제 시가를 선별하는 대상 측면에서 이런 관계를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원매는 남경 소창산(小倉山) 밑에 위치한 隨園에 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명성을 흠모하여 찾아왔다고 한다. 따라서 원매도 삼교구류의 별의별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따라 시를 배웠다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자랑하기도 하였다.<sup>35)</sup> 원매의 교유 관계가 이렇게 넓었던 까닭에 그가 시를 선별하여 자신의 시화에 넣을 때 굳이 시인의 신분과 성별을 구별하지 않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원매는 일찍이 자신의 채시 원칙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시를 채취하는 것은 구호 물자를 보내 구제하는 것과 같다. 차라리 지나칠망정 누락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시는 아직 판목에 새기지 않은 것을 지나치게 채취하는 것은 좋고 이미 판목에 새기는 것을 누락하는 것이 있어도 무방하다.<sup>36)</sup>

원매의 채시 원칙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寧濫毋遺”이다. 나아가 그는 시가의 유전과 보존에 입각

34) 최성환, 「性靈集序」, 『性靈集』. “燈夕花朝, 批閱古人卷, 有寫景者, 有言情者, 有正直者, 有婉媚者, 有俊秀者, 有博大者, 有玄遠者, 有真率者, 有鬼怪者, 有雕刻者, 有與峭者, 有倔強者, 有俳諧者, 有富麗者, 有芬芳悱惻者, 有瓌瑋璀璨者, 以至司空表聖所謂二十四品者, 萬狀畢陳, 眩我之心目. 然未必皆合於我之性情矣, 其或遇我之性相近者, 則自然舞蹈之既而感歎之, 繼而恨不為我之有, 中心魄壘者, 亦屢日矣.”

35) 袁枚, 『隨園詩話』補遺 卷1, 앞의 책, 1960, 806쪽. “以詩受業隨園者, 方外縉流, 青衣紅粉, 無所不備.”

36) 袁枚, 『隨園詩話』補遺 卷8, 앞의 책, 1960, 773쪽. “采詩如散賑也, 寧濫毋遺, 然其詩未刻稿者, 寧失之濫, 已刻稿者, 不妨於遺.”

하여 아직 세간에 유전하지 못하는 시가를 우선하여 선택해야 된다고 강조하였다. 원매의 이와 같은 원칙은 분명히 전통적 선시 표준과는 현저한 차이를 갖는 것이다. 그래서 원매가 『隨園詩話』에서 시인의 신분과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넓은 범위의 시를 초록했다는 것을 비난한 여론도 있었다. 이런 비난에 대해 원매는 “自高”와 “自狹”의 비유로 스스로 변명하였다. 채시의 표준이 “自高”하면 가파른 산벼랑에 비가 내릴 때 금방 흠어지고 스며들지 못하는 것과 같고, 또한 표준이 “自狹”하면 마치 항아리에 물을 담을 때 한 말을 담으면 바로 넘치는 것과 같으니 이는 시를 선별할 때 조건은 높고 범위는 비좁아야 된다는 논조를 반박하였던 것이다.<sup>37)</sup> 이외에도 원매는 당대(當代)에 여자가 시를 쓰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는 논조에 대해 격렬하게 성토했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원매는 여자가 시를 쓰는 것을 비난하는 편견에 맞서 이렇게 대응하였다. “(세간에) 흔히 여자가 시를 쓰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이 말은 참 천박한 것이다. 성인은 『三百篇』 맨 앞에 「關雎」와 「葛覃」 편을 두어 있었는데 이는 모두 여자의 시들이었다. 바느질 하는 일 이외의 시간에 글재주 부릴 여유도 없는데 게다가 창화하고 제창하는 사람도 없으면 그냥 세상에 묻혀 살고 알려지지 못할까 걱정한다.<sup>38)</sup>” 여기서 원매는 우선 여자가 시를 쓰는 것은 옛날부터 이미 있었던 일이고 또한 『시경』 맨 앞에 두었다는 사실을 열거하여 여성 시인의 정통성과 지위 문제를 해결하였다. 다음으로 원매는 보존과 유전의 각도에서 여자가 원래 집안 일 때문에 시를 쓰는 여유가 없는 것인데 만약 그들이 가까스로 쓴 시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이런 시들이 세상에서 실전(失傳)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원매는 “문호지견”을 버리고 “寧濫毋遺”를 강조하며 여성 시인의 가치를 긍정하는 바탕에서 “女子”와 “村氓” 시가의 가치는 시단 명수에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였다.<sup>39)</sup> 이로 인해 원매의 『隨園詩話』를 보면 시인의 신분과 성별 차이 그리고 시가의 유파와 체격 차이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원매가 시를 선별하는 경향은 자신이 스스로 강조했듯 “대개 시를 쓰는 것은 모두 각자의 신분이 있고 또한 각자의 마음이 있다”<sup>40)</sup>는 취지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최성환이 『性靈集』을 편찬하는 원리는 바로 원매의 이러한 정신을 이어가는 것에 있다.

『性靈集』에 수록되어 있는 시인을 보면 그 신분과 성별을 구속하지 않았다는 특징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시인의 신분은 대개 정단 名人和 시단 老手 이외에 畸士, 賤工, 商人, 青衣, 紅粉, 方外, 歌妓, 僧侶 등 많은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삼교구류의 별의별 사람들을 모두 『性靈集』에서 만날 수 있다. 특히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처럼 무명의 ‘하찮은’ 이들이 모두 청대 부분에서만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거의 원매의 『隨園詩話』에 있는 인물을 그대로 베껴 온 것에 가깝다는 것이다. 최성환은 일찍이 「凡例」에서 말하기를, “역대 시인 가운데 명수라도 빠뜨리는 이가 있고 이름 없는 사람이라도 초록하는 이도 있다. 단지 그 시는

37) 袁枚, 『隨園詩話』 補遺 卷4, 앞의 책, 1960, 656쪽. “人有皆余詩話收取太濫者, 余告之曰: 余嘗受教於方正學先生矣, 嘗見先生手書, 贈俞子嚴溪喻一篇云: 學者之病, 最忌自高與自狹. 自高者, 如峭壁巍然, 時雨過之, 須臾溜散, 不能分潤; 自狹者, 如甕盎受水, 容擔容斗, 過其量則溢矣.”

38) 袁枚, 『隨園詩話』 補遺 卷1, 앞의 책, 1960, 590쪽. “俗稱女子不宜為詩, 陋哉言乎. 聖人以關雎葛覃卷, 耳冠三百篇之首, 皆女子之詩. 第恐針黹之余, 不暇弄筆墨, 而又無人唱和而表章之, 則淹沒而不宣者多矣.”

39) 袁枚, 『隨園詩話』 卷3, 앞의 책, 1960, 88쪽. “詩境最寬, 有學士大夫讀破萬卷, 窮老盡氣, 而不能得其闢奧者. 有婦人女子村氓淺學, 偶有一二句, 雖李杜復生, 必為低首者, 此詩之所以為大也.”

40) 袁枚, 『隨園詩話』 卷4, 앞의 책, 1960, 101쪽. “凡作詩者, 各有身分, 亦各有心胸.”

과연 선집의 체제와 맞는지 보지만 하고 그 사람을 지명하는지를 구속하지는 않는다.”<sup>41)</sup>고 하였다. 여기서 최성환이 말하는 “선집의 체제”란 그가 『性靈集序』에서 재삼 강조하는 “성령”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성환이 『性靈集』을 편찬했던 것은 자신의 성령 심미 취향을 선언하는 동시에 역대의 성령시를 후대에 유전하려는 의도를 가졌기 때문이었다. 고로 시를 선별할 때에 시인의 신분에도 구속받지 않고 넓게 초록한 동시에 당대(當代)에 이미 쉽게 볼 수 없는 시가도 더불어 많이 초록해 두었다. 예컨대 원매는 『隨園詩話』에서 일찍 죽어 유명할 수 없었던 시인의 시와 시집이 이미 불타버린 바람에 원작자가 아닌 다른 이를 통해 어렵게 다시 알게 되는 시인의 시 등을 많이 기재했다. 최성환 역시 『性靈集』에서 이와 같은 “早亡”시인<sup>42)</sup>과 “自焚詩稿”시인<sup>43)</sup>의 시가를 그대로 베꼈다. 이외에도 원매는 『隨園詩話』에서 자신의 여동생 袁機, 袁抒, 袁棠과 愛姬, 兒媳, 外甥媳 그리고 남동생 袁樹와 侄兒, 妹婿 등 친족과 門生과 座主 등 우인에 관한 기사와 시가를 많이 수록하였다. 최성환은 『性靈集』에서 원매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인물의 시가를 선별하여 초록했던 점을 보면 그가 원매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범위와 대상 두 측면 이외에 최성환은 시가의 풍격 측면에서도 원매의 『隨園詩話』 영향을 받았다. 원매는 상투적인 것을 답습하는 습속을 지양하여 “清新”, “拔俗”, “風趣”의 시가 창작 풍격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면 그는 “만약 오늘날에 음영하는 것은 내일도 음영할 수 있고, 이 사람에게 선사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선사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실속 없고 상투적이며 진부한 것이다.”<sup>44)</sup>라고 했고 심지어 “風趣專寫性靈”<sup>45)</sup>라고 주장한 바도 있었다. 이에 원매는 『隨園詩話』에서 “清新”, “拔俗”, “風趣”의 풍격을 지니는 시가를 많이 수록한 동시에 이러한 시가를 높이 논평하기도 하였다. 최성환은 『性靈集』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원매의 이와 같은 경향성을 수용하여 상투적인 형식을 버리고 풍취(風趣)한 모습을 드러내는 시가를 많이 수록하였다. 아래와 같은 두 사례를 보자.

서로 바라볼 때 단지 한 강물을 사이에 두고 있는데  
 까치가 다리를 채우지 않다면 감히 넘어갈 수 없네.  
 신선이 되어도 강물을 무서워하더니  
 헤아려 보니 있어도 많지 않겠네.

41) 최성환, 「凡例」, 『性靈集』. “歷代詩人有名手而見漏者, 有不甚表著而見錄者, 只看其詩之果合於此選體制也, 未其人之知名與否所不拘.”

42) 이런 사례는 많은데 그 가운데에서도 대표적인 인물은 金兌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隨園詩話』補遺 卷2 44條에 아래와 같이 기록한 바 있다. “蘇州桃花塢有女子, 姓金, 名兌, 字湘芝者, 諸生金鳳翔女也. 年甫十三, 有人錄其秋日雜興云: 無事柴門識靜機, 初晴樹上掛蓑衣. 花間小燕隨風去, 也向雲霄漸學飛. 秋來只有睡工夫, 水檻風涼近石湖. 卻笑溪邊老漁父, 垂竿終日一魚無.” 최성환은 『性靈集』續集之六에서 13세의 나이로 일찍 죽은 金兌 「秋日雜興」의 후 4구를 그대로 수록하였다.

43) 예를 들면 『隨園詩話』卷2 67條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었다. “竹筠女子早卒, 自焚詩稿, 僅傳其宮詞云: 中官宣詔按新箏, 玉指輕彈別恨聲. 恰被東風吹散去, 君王乍聽未分明.” 최성환은 『性靈集』續集之六에서 이 「宮詞」시를 수록했는데 다만 高竹筠 딸의 이름을 “姚益麟”으로 오기하였다.

44) 袁枚, 『隨園詩話』卷1, 앞의 책, 1960, 19쪽. “若今日所詠, 明日亦可詠之, 此人可贈, 他人亦可贈之, 便是空腔虛套, 陳腐不堪矣.”

45) 袁枚, 『隨園詩話』卷1, 앞의 책, 1960, 2쪽.

相看只隔一條河 鵲不填橋不敢過  
作到神仙還怕水 算來有巧也無多

(최성환, 『性靈集』 五集 卷之六, 燕以均 「詠七夕」 袁枚, 『隨園詩話』 補遺 卷10, 23條)

누구 집의 정원은 스스로 봄을 맞이하는데  
창문턱에 태선이 있고 책상에 먼지가 많네.  
하필 이웃집의 개가 관심을 기울이고  
격벽에 꽃을 꺾고 있는 사람에게 짓네.

誰家庭院自成春 窗有莓苔案有塵  
偏嗜關心鄰舍犬 隔牆猶吠折花人

(최성환, 『性靈集』 五集 卷之六, 李勉 「廢園」 袁枚, 『隨園詩話』 卷13, 20條)

원매는 일찍이 燕以均의 「詠七夕」와 李勉의 「廢園」에 대해 각각 “詩極風趣”와 “尖新”이라고 논평한 바가 있었다.<sup>46)</sup> 燕以均은 음영한 화제는 널리 알려진 전설이지만 상투적인 서술적 태도를 지양하여 “戲虐”의 말투로 “풍취”의 효과를 만들어 상투적인 화제를 활기 있는 작품으로 만들었다. 李勉의 핵심 화제는 폐기한 정원을 묘사하는 것인데 여기서 직접 정원이 폐기한 모습을 중심으로 묘사하는 전통적 기법을 지양하고자 봄의 정원에 나타난 봄의 광경과 창문과 책상을 폐기한 모습을 대조하고 또한 이웃집의 개가 정원에 꽃을 꺾은 사람에게 짓고 있다는 묘사를 통해 정원의 황폐를 드러냈다. 이상의 시는 모두 전통적 의상(意象)과 상투적 기법을 지양하고 새로운 상상과 기법으로 시가를 창작하는 전범이라고 말할 수 있다. 최성환은 진부하고 상투적인 창작 방법을 버린 두 시의 창작 기법과 풍격을 긍정하고 선호하여 『性靈集』에서 그대로 초록하였다. 이제 이상의 논의를 보면 최성환은 『性靈集』을 편찬할 때 “문호지견”을 타파하고 시인의 성분과 성별을 구속하지 않으며 시가의 “拔俗”과 “風趣”를 강조하는 이념에서 원매 『隨園詩話』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원매는 일찍이 시를 선별할 때 꼭 피면(避免)해야 된다는 7가지 사항을 당부한 적이 있다. 그 가운데 “한 시인을 시를 선별할 때에는 꼭 전면적으로 읽은 후 진행하되 편파적이어서는 안 된다. 시가의 체격은 매우 광범위하게 포함되어야 하므로 일가에만 구속되면 안 된다. 이는 ‘문호지견’은 꼭 버려야 하며 시를 선별하는 유일한 표준은 오직 성정에 가까운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시교관’을 고수하여서는 안 되고 사람을 교화하는 의도를 가지지 말아야 된다.”<sup>47)</sup>라는 내용이 그것이다. 이를 토대로 보면 최성환은 원매의 『隨園詩話』를 통

46) 袁枚, 『隨園詩話』 補遺 卷10, 앞의 책, 1960, 827쪽; 袁枚, 『隨園詩話』 卷13, 앞의 책, 1960, 441쪽.

47) 袁枚, 『隨園詩話』 卷14, 앞의 책, 1960, 465~466쪽. “選家選近人之詩, 有七病焉。其借此射利通聲氣者, 無論矣, 凡人全集, 各有精神, 必通觀之, 方可定去取, 倘拈撫一二, 並非其人應選之詩, 管窺蠡測, 一病也; 三百篇中, 貞淫正變, 無所不包, 今就一人見解之小, 而欲該群才之大, 於各家門戶源流, 並未探討, 以己履為式, 而削他人之足以就之, 二病也; 分唐界宋, 抱杜尊韓, 附會大家門面, 而不能判別真偽, 采摭精華, 三病也; 動稱綱常名教, 箴刺褒譏, 以為非有關係者不錄, 不知贈芍采蘭有何關係, 而聖人不刪, 宋儒責蔡文姬不應登列女傳, 然則十七史列傳, 盡皆龍逢比幹乎, 學究條規, 令人欲嘔, 四病也。”

독하여 성령시를 초록하고 『性靈集』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원리를 따라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성환은 원매가 당부했던 “내용을 함부로 개정하거나 가감하면 안 되고 글을 쇠로 변하게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사적인 감정과 청탁으로 시를 선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두 가지 주의 사항은 그만 따르지 못하였다. 물론 시를 선별할 때 사적인 감정을 배척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며 이런 사항을 제기했던 원매도 스스로 자신이 이를 따르지 못했다고 고백하였다.<sup>48)</sup> 이렇게 볼 때 최성환이 원매와 그의 주변 인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역시 인정사리에 맞는 것이었다.

## V. 맺음말

19세기에 이르러 여항시인 사이에 원매를 수용하는 열기가 일어났다. 최성환의 『性靈集』은 19세기 조선 시학의 이러한 동향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을 제공해 주었다. 본고에서는 최성환이 『性靈集』을 편찬하는 연기(緣起)와 원리를 고찰하는 것을 통해 19세기에 원매와 『隨園詩話』의 조선 전파와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18세기 말~19세기 초 원매의 『隨園詩話』가 조선으로 들어온 후 열독의 열기가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조선 문인이 『隨園詩話』에 수록된 시론과 시에 대해 갖는 관심이 점점 증가했다. “성령” 시학을 이해하고 선언하는 측면에서 일부 문인은 『隨園詩話』의 내용을 선별하여 초록하였다. 최성환의 『性靈集』은 바로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세상에 나타난 것이다.

둘째, 최성환은 원매 『隨園詩話』의 영향을 받아 『性靈集』을 편찬하여 시를 선별할 때 진부하고 상투적인 창작 풍격을 지양한 동시에 시인의 신분과 성별, 시가의 체제와 체격에 구속되지 않으며 성령을 드러내는 시가라면 모두 수록하였다. 이에 『性靈集』은 원매의 『隨園詩話』에 수록된 여성 시인과 염정시 뿐 아니라 “拔俗”, “風趣”의 풍격을 지닌 시가를 많이 초록하였다. 이는 『性靈集』의 가장 도드라진 특징으로 내세울 만하다.

셋째, 원매가 『隨園詩話』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시가의 후대 유전을 중시하는 경향과 마찬가지로 최성환이 『性靈集』을 편찬했을 때에도 이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隨園詩話』에 수록되어 있는 “早亡” 시인과 “自焚詩稿” 시인의 시가는 모두 『性靈集』에서 초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구나 18세기 후기 조선 시의 자각을 강조하는 “조선풍” 시학 이념의 영향 하에서 최성환은 중국 역대 시가를 선별할 동시에 자신을 포함하여 조선 시인의 시가도 적지 않게 수록하고 있다. 전통 시론가는 비천한 사람과 여자는 모두 시를 쓰는 자질을 갖지 못하는 사람으로 여겼다. 따라서 이들에게 하층 계급에 속한 사람들의 시가는 자연히

48) 이상 袁枚, 『隨園詩話』 卷14, 앞의 책, 1960, 466쪽. “貪選部頭之大, 以為每省每郡, 必選數人, 遂至勉強搜尋, 從寬濫錄, 五病也; 或其人才力與作者相隔甚遠, 而妄為改竄, 遂至點金成鐵, 六病也; 徇一己之交情, 聽他人之求請, 七病也. 末一條, 余作詩話亦不能免.” 정리한 것이다.

가치가 떨어지므로 편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최성환은 『性靈集』에서 “紅粉”뿐만 아니라 “青衣”, “布衣”, “方外” 등 하층계급에 속한 사람들의 시가를 많이 선별하고 수록하였다. 이처럼 최성환은 시인의 신분과 성별의 구속을 타파하고 시인의 군체(群體)와 시가의 풍격을 해방하는 측면에서 진보적인 의의가 돋보인다. 최성환은 『隨園詩話』를 통독하는 과정에서 원매의 채시관을 수용하고 전통 시론을 지양하고 도전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 〈참고문헌〉

#### 자료

박장암(역음), 『縞紵集』 上, 이우성(편), 『楚亭全書』 下, 亞細亞文化社, 1992.

崔瑄煥, 『性靈集』, 國立中央圖書館 소장본(일산古3715-68).

王英志(編), 『袁枚全集』 第一冊 第二冊 第八冊, 江蘇古籍出版社, 1993.

錢泳(著), 『履園叢話』 丁福保(輯), 『清詩話』 下冊, 上海古籍出版社, 1978.

袁枚(著), 顧學頤(校點), 『隨園詩話』, 人民文學出版社, 1960.

#### 논저

금지아, 「『性靈集』의 편성체제와 특징」, 『中國語文學論集』 46, 중국어문학연구회, 2007.

劉婧·金榮鎮, 「清人 孫致彌가 편찬한 『朝鮮採風錄』에 대한 고찰」, 『溫知論叢』 42, 2015.

이경수, 『漢詩四家の 清代詩受容研究』, 태학사, 1995.

이우성, 「金秋史 및 中人層의 性靈論」, 『한국한문학연구』 5, 한국한문학연구회, 1980.

이정선, 『조선후기 조선풍 한시 연구』,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2.

정우봉, 「19세기 性靈論의 재조명 - 崔瑄煥의 性靈論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35, 한국한문학연구회 2005.

童玲, 「『百家詩話鈔』溯源小考」, 『古代文學理論研究』 33,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11.

張伯偉, 『清代詩話東傳略論稿』, 中華書局, 2007.

張伯偉, 「李鈺『百家詩話鈔』小考」, 『域外漢籍研究集刊』 3, 中華書局, 2007.

\* 이 논문은 2015년 11월 26일에 투고되어,  
2015년 12월 11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6년 1월 4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6년 1월 7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 | Abstract |

## Incoming of “Criticism of Poetry from the Garden of Leisure” in Later Period of Korea and Compilation of “Soul Set” by Choi Seonghwan

Han, Dong\*

The Korean folk scholars appeared an acceptance phenomenon to Wonmae in the 19th century. The “Soul Set” which written by Choi Seonghwan was a specific performance. The study is to investigate his motivation and principle, to illustrate the influence on Korea of Wonmae and his “criticism of Poetry from the Garden of Leisure” in 19th century. the above research content is as follows: First, at the end of eighteenth Century and early nineteenth Century, Wonmae's poetry was introduced into Korea, and set off an upsurge of reading. In the process, for the sake of understanding and propaganda, a part of Korean literati began for sorting and copying the contents of the “Criticism of Poetry from the Garden of Leisure”. Choi Seonghwan's “Soul Set” is produced in this context. Second, due to the influence of Wonmae, Choi Seonghwan compiling the Soul Set”, not entangled in the poet's identity and gender, and poetry of the subject and style, as long as it is to express “the soul “will be included. Thus we find in the soul set reproduces many female poet and sentimental poetry, which can be considered a significant feature of his compile. The third, the compilation of Choi Seonghwan pay attention to the spread issues of poetry. Therefore, the poems of “early death” poets and “self Immolation manuscript” were included. At the same time, by the influence of Korean poetry literary consciousness and subjectivity emphasizes in the late 18th century, Choi Seonghwan elected poetry also included a lot of Korean people's poetry, contain Himself.

**[Key Words]** Choi Seonghwan(崔理煥), “Soul Set(性灵集)”, Wonmae(袁枚), “Criticism of Poetry from the Garden of Leisure(隨園詩話)”, poetics

---

\* The Ph.D. Candidate, College of Humanities, Hanyang University